

【「우키타 히데이에의 소나무」를 읽고】

안녕하세요. 오카야마시장 오모리입니다.

여러분은 16세기 말의 비젠 오카야마의 영주인 우키타 히데이에에 관한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까? 저는 얼마 전 시마다 나나에 씨의 「우키타 히데이에의 소나무」라는 작품을 읽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여기에선 생략하지만,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부 장군으로 전투에 참가해 큰 패배를 맞본 무장 히데 이에와 유배지인 핫초섬에서 여러 가지 갈등을 안고 있으면서도 평온하고 단조로운 날들을 보내는 히데 이에의 모습이 부드러운 터치로 그려지는 가운데 성실하고 온후한 인품과 아내 고 (고 공주)에 대한 생각, 또한 무사로서의 신념 등 우키타 히데이에는 남자의 인간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저 자신 우키타 가계라고 하면 모략의 한계를 뛰어넘는 "쿄유(잔인하고 거칠고 강한 무장을 비유하는 말)" 라고 불리던 히데이에의 아버지 나오이에의 이미지가 너무 강해 히데이에에 대해 막연하지만 같은 인상을 느끼고 있었는데, 실제 모습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저자인 시마다 씨는 아마도 엄청난 양의 문헌을 읽고 고찰을 거듭해 히데이에의 인간상에 도달했을 것으로 추측하고 그 노력에 탄복함과 동시에 자신의 지식의 부족, 인식의 부족에 부끄러웠습니다.

저도 그때그때 오카야마의 역사·문화를 얘기할 기회가 있습니다만, 이것을 계기로 더욱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번 기회에 꼭 한 번 읽어 보시길.

또한, 하치조 섬의 난바라센쥬지키에는 1997년 히데이에와 고 공주의 동상이 세워져 그 두 동상의 시선은 바다 건너 멀리 약 600킬로미터 떨어진 오카야마에 향하고 있는 것. 한 번 제 눈으로 그 모습을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시간은 참 빠른 것으로 올해도 남은 건 수일뿐. 이 메일 매거진도 1월부터 시작해 꼭 30 회째를 맞는 이번이 연내 마지막 발행이 됩니다.

여러분은 추위가 더한 지금 건강에 유의 하시고 밝은 새해를 맞이 하시길 기원 드리며 새해에도 오카야마의 새로운 비약을 위해 변함없는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연말 인사를 맺겠습니다.